

나주시, 제8회 일자리 페스티벌 성황

19개 업체 현장면접 70여명 참여...16명 현장 채용

한전·전력거래소 등 멘토링·취업 컨설팅 500여명 참여



나주시는 지난 달 31일 빗가람 호수공원 일원에서 열린 '제8회 잡(JOB) 페스티벌 일자리 박람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잡 페스티벌 행사는 구인·구직자의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한 '현장면접', '취업특강', '1:1취업 컨설팅', '공공기관 채용설명회' 등을 진행했으며 고등학생부터 청년, 중·장년

층에 이르기까지 500여명이 참여했다.

위더스, 남원티보일, 해능 등 관내 19개 업체는 현장에서 직접 채용관 부스를 운영, 채용 담당자와 구직자의 현장 면접을 실시해 큰 관심을 끌었다.

현장 면접에는 총 69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중 16명이 채용됐으며 45명이 추후 2차 면접

을 통해 취업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이력서 사진 촬영', '면접 이미지 메이킹 및 메이크업', '취업 응원 캘리그래피', 'AI자기소개서 체험' 등 진로·취업 관련 이벤트 부스를 운영해 구직자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여기에 한국전력공사·한전KPS·한전KDN·전력거래소는 현장직의 공공기관 취업 노하우를 공유하는 멘토링 부스를, 전남테크노파크·녹색에너지연구원·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국립목포대학교에서도 기관별 사업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참여자 280여명에게 취업 컨설팅을 제공했다.

제8회 잡 페스티벌 행사는 나주시와 나주시 일자리지원센터가 주최, 녹색에너지연구원, 동신대학교, 전남테크노파크가 주관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행사장 부스를 찾아 입주 업체·기관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교통, 주거 등 근로여건 개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윤 시장은 "산단 근로자의 교통 편의와 주거 안정을 위한 산단 전용 출·퇴근 버스 운행, 15분 급행 교통체계 구축과 공동 주거시설, 주거비 지원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라며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수도권 이탈 현상을 막고 지역에서 인재를 키워 관내 기업에 안착할 수 있는 일자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송준표 기자



구례군, 어린이 불소도포 및 구강보건교육 실시

충치 예방 및 올바른 치아관리 습관 형성 기틀 마련

구례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어린이 불소도포 사업을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불소도포 사업은 아동기에 자주 발생하는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올바른 치아관리 습관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그동안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으나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하면서 금년 10월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수혜 대상은 15개소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으로 약 240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례군보건의료원은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연초에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로 구성된 구강

보건관리 전담팀을 구성하였다. 전담팀은 구례군 관내 유치원·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충치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어린이들에게 불소를 도포하고 있다. 동시에 아동이 건강한 영구치를 위한 유치관리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매체를 활용한 올바른 칫솔질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보건의료원 사업 담당자는 불소 도포 사업을 실시하면서 발견한 구강상태가 건강하지 못한 아동에 대해서는 향후 영구치 건강을 위해 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치아홈메우기 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례=박진호 기자

화순군, 2023년 상반기

내국인 계절근로자 모집

화순군은 농촌지역의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을 계획 중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국인을 우선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만 30세 이상 55세 이하이고 농작업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사람으로, 보수는 2023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월 201만 원 선이다. 1일 8시간 근무, 1일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보장된다.

신청은 11월 8일까지 화순군청 농업정책과를 방문해서 하면 된다. 모집 참여자는 지역 농가와 연결하게 되며 작물 파종, 생산, 수확 등 농작업에 종사하게 된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 9월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번기에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담양군 '담빛영화관', 관람객 3만 명 돌파

청소년문화의집 1층에 위치...전국 동시개봉 최신영화 상영

지난해 문을 연 담양군의 작은영화관, '담빛영화관'이 개관 1년 만에 3만 관람객을 돌파했다.

담양군 청소년문화의집 1층에 위치한 담빛영화관은 2D와 3D 입체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최신 영상장비를 갖춰, 전국 동시개봉 최신영화를 상영한다.

현재 지역민들이 편안하게 여가를 즐기는 공간으로서 특히 가족 단위 관람객과 학생, 군인 등 단체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담빛영화관은 성인 6천원, 65세 이상 어르신과 만 18세 이하 청소년 등은 5천원으로 일반영화관에 비해 절반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상영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예매는 홈페이지(<https://olcinema.co.kr>) 또는 현장에서 가능하다.



한편 담양군에서는 더 많은 지역민의 영화 관람 및 영화상영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12개 읍·면에 디지털사이니지(홍보디스플레이)를 설치 예정으로 관람객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누리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갈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장성군에 불어온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

장성군이 10월26일 언론사 등에 공개한 기구표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돼 주목을 끈다.

통상 자치단체장이 맨 위에 위치하던 조직도가 수평 구조로 바뀐 것. 실과장, 보건소장, 장성군의회 의원 등이 군수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 생경하기까지 하다.

25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김한중 군수는 "지자체장은 공직자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동료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었다"고 밝히면서 "공무원이 행복해야 장성군민이 행복하다는 생각으로 함께, 즐겁게 일하자"고 독려했다.

장성=김수권 기자

곡성군 드림스타트, 어린이대축제 가족 문화 체험 호응

곡성군 드림스타트가 지난 30일까지 개최된 제22회 곡성심정어린이대축제에서 가족 문화 체험을 진행해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드림스타트는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제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 복지 사업이다. 만 12세 초등학생 이하 취약 계층 아동과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다양한 지역 자

원을 연계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곡성군은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등 4개 분야로 나눠 매년 3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속적으로 아동과 양육자를 상담하면서 단계별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을 촉진한다.

곡성=양혜영 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날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판